

死에 對한 研究(七)

韓稚振

- 十. 좀 □因하도록 肉體 全部를 □음죽이어 每日 運動할 것
 - 十一. 할 수 있는 대로 □□만히 할 것
 - 十二. 可及的 平□한 마음을 가지고 健全한 生覺만을 하기로 힘쓸 것
 - 十三. 快樂한 마음을 가질 것
 - 十四. 沐浴 자주하되 冷水로 沐浴함이 조호나 넘우 寒冷하야 견대기 어려우면 溫水로함이 조흔 것
 - 十五. 좀 큼직한 衣服을 입으되 넘우 空氣不通케 하지 말 것
 - 十六. 溫氣보다 冷寒氣가 有利하니 住宅을 暖은 □所에 둠이 良好할것
 - 十七. 環境에게 征服되지 말고 그것을 自作創造할것
 - 十八. □□性を 그대로 有力하다하야 □□할 것 업고 單只 活動的 生活만 하기로 힘쓰면 □意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을 確信할것
 - 十九. 얼마 살고 죽겠다고 미리 老死할 年□을 定하지말 것이니 그 以上을 살 것을 밋을 것
 - 二十. 一生의 事業을 專하였다고 生覺지 말고 生의 □味를 부쳐 快樂한 노름(쌌임)을 좀 해볼 것
- 以上에 記錄한 모든 □□을 實行한다. 하면 勿論 오래동안 健康하고도 □快樂스러운 一生을 지날 것이다.

八. 死에 對한 恐怖

動物치고는 自我保存을 □아치니 하는 이는 업슬 것이다. 누구나 죽기를 실혀하고 살라하는 것은 自然法則이 되었다. 그러치만은 엇더한 生物이든지 그 個體的으로는 언제든지 죽지아니 하면 안된다. 이러한 죽는 事實이 잇기 때문에 저마다. 죽는 境遇에 □하지 아니 할라고 애쓰게 되었다. 故로 死亡에 對한 恐怖는 普通的이 되었다. 그러면 이 死의 恐怖는 꼭 免치 못할 現象인가?

어린애들은 比較的 死亡에 對한 恐怖를 덜 가지는 것 같다. 生命이 生起면 生起는대로 살 것 뿐이요, 或 不幸하여 死去한다. 하드래도 別로 後悔함이 업는 것 같다. 自我를 意識할 줄 모르는 下等動物들도 別로 死亡에 對하여 근심이 업는 듯하다. 그러면 사람은 왜 死에 對하여 恐怖를 가지며 焦思하게 되는가? 정말 死亡은 恐怖할 것인가? 實로 死亡을 참으로 알고 보면 恐怖할 것은 아니다. 勿論 死의 恐怖는 사람이 意識적으로 自己의 □來를 推測하는 가운데서 生産된 □□이나 그러나 한 번 더 死라하는 事實을 □查해보면 조금도 두려워 할 □□은 업겠다. 마치 하로 진일토록 努□하다가 밤이 되면 休息할 것을 憤□하는 것과 가티 넘우 오래 살게 되면 死를 □하게 되는 境遇도 업지 안하 있다. 이미 以上에도 指示하였지마는 死亡에 □時하여서는 別로 苦痛도 업스니 死를 恐怖할 것은 업겠다. 實相말이지 한 번 死하면 一切問題는 解決되고 마나니 別 근심 苦痛은 업는 것이다. 所謂 死의 恐怖라하는 것은 生前의 問題요 死後問題는 아니다.

엇든이는 死를 恐怖알은 죽은 後에 모든 사랑하는 親戚과 朋友를 볼 수 업는 까닭이라 하나 그러나 이는 死後에도 □全한 意識의 存在를 □□하기 쟈문이니 그는 □□이다. 死後에는 生前에 가졌든 意識갓흔 것은 업다. 無爲 無存일 뿐이다. 實로 死後에 될 일을 生覺하는 것과 갓겠다. 그러나 우리에게 잇서는 出生 前의 事나 死後의 事나 別로 意味는 업다. 우리가 只今 生覺하고잇는 모든 事物은 다 只今에 우리가 가지고 잇는 意識에 限定된 것이고 우리의 只今 意識이 消□한다든지 □去한다든지 하는 境遇에는 只今에 問題되어잇는 凡事는 업서지고 마는 것이다.

다시 우리가 死後에 永生이라든지 쏘는 그 비슷한 生活이 □□된다하면 今일에 死를 恐怖할 것은 업겠다. 死後에 平安한 生活이 있다. 하면 死를 두려워 말고 速히 其 生活을 取하기를 願할 것이다. 이럼으로 死後에 生이 쏘 잇다든지 업다든지 死를 恐怖하는 原因은 되지 못한다. 死亡은 以下를 意味한다.